

## 한국광복군 계급장 연구

김정민 · 김창혁\*†

한성대학교 글로벌패션산업학부, \*(前)대한민국 육군

### A Study of the Rank Insignia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Jeong Min Kim · Chang Hyuk Kim\*†

Division of Global Fashion Industry, Hansung University

\*(Former) Republic of Korea Army

Received October 10, 2024; Revised November 13, 2024; Accepted November 29, 2024

#### Abstract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KIA)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from imperial Japan. Its rank insignia were essential for signifying its status as a regular military force. While previous studies have examined their regulation, the insignia served various purposes, and some have been neglected. This study conduc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KIA's rank insignia to clarify their forms and uses, drawing on relevant regulations, literary sources, photographs, and artifacts. The insignia used by the KIA, derived from the Army of the Chinese Nationalist Government, were identified and examined. The study found that high-ranking officers and those from the KIA's 3<sup>rd</sup> branch wore collar insignia, and identification patches were more commonly used. The KIA established the Army Insignia Protocol independently, but discrepancies occurred between the shoulder patches designed and those worn, indicating that they were likely used by high-ranking officers during ceremonies. This study found that the 3<sup>rd</sup> company of the KIA's 1<sup>st</sup> branch wore unique, self-made rank insignia that differed from the others. The study provides a framework for dating KIA photographs and verifying the authenticity of military artifacts, enabling more accurate portrayals of the KIA in the media.

**Key words:** Army insignia protocol, Korean independence army, Military uniform,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Rank insignia; 육군휘장도안, 한국광복군, 군복,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급장

## I. 서 론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 이하 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에 성립되어 1946년 5월 16일 복원선언(復員宣言)에 의해 임무를 종료할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군사 활동의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광복군은 제2차 세계대전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아래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항일 무장 독립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수많은 독립운동 세력들 사이에서 임

정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계국군과 독립군을 계승한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국군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각종 군사제도를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계급 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계급 체계에 맞는 계급장을 고안, 착용함으로써 광복군이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정규군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계급장에 무궁화와 태극 등 한국을 상징하는 고유 문양을 반영하여 광복군이 한국의 군대라 공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광복군의 계급장은 광복군이 한국의 정규군임을

†Corresponding author

E-mail: msta8793@gmail.com

상징하는 중요 수단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비하다. 선행연구(Army Uniform History Editorial Board, 1980;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1997; Kim, 2019; Kim & Kim, 2023)는 계급장을 다루지 않거나, 여러 표지장(標識章) 중 하나로 간략히 계급장을 다루면서, 『육군휘장도안』에 나타난 계급장의 형태와 운용을 고찰하고, 사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광복군의 계급장은 『육군휘장도안』과 다르게 운용된 사례가 있으며, 규정되지 않은 독특한 계급장들도 사용되었음이 여러 사진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광복군 관련 계급장을 폭넓게, 그리고 깊이 고찰하여 그 모습과 운용을 밝히는 데 의의를 둔다.

이에 첫째,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광복군이 착용한 중국 국민정부의 『육군복제조례(陸軍服制條例)』(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GRC], 1936)에 따른 계급장과 그 사용을 살펴보고, 둘째, 광복군이 독자적으로 제정한 『육군휘장도안』(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IMHCC], 1972)에 나타난 계급장의 실제 모습과 착용 방법을 확인하며, 셋째, 규정에는 없으나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가 착용한 계급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광복군이 착용한 계급장들과 관련된 중국 국민정부와 광복군의 규정, 회고록 등의 문헌자료, 사진 및 유물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광복군의 계급장 및 그 착용을 밝힘과 동시에, 광복군을 촬영한 사진자료의 연대 감정과 추후 발굴될 광복군 군복의 진위 감정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광복군 관련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의 미디어, 도서 삽화, 박물관 및 기념관 전시 등에서 광복군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II. 한국광복군이 사용한 계급 체계

광복군의 계급장을 고찰하기에 앞서, 광복군이 사용한 여러 계급 체계의 기원과 그 구성을 살펴본다. 광복군이 성립되기 전인 1919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육군임시군제(大韓民國陸軍臨時軍制)』(이하 임시군제)에서 대한제국군과 유사한 계급 체계를 규정했다. 1921년 ‘군무부 역사보고 봉정의 건’의 별책 제7호에 실려 있는 『임시군제』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는 정장(正將)·부장(副將)·참장(參將)으로, 영관급 장교는 정령(正

領)·부령(副領)·참령(參領)으로, 위관급 장교는 정위(正尉)·부위(副尉)·참위(參尉)로, 사관은 정사(正士)·부사(副士)·참사(參士)로, 병원(兵員)은 일등병·이등병·삼등병으로 구분하였다(Kim, 2019). 한편, 별지 제8호의 『임시군제』는 위관을 ‘교관’이라 명명하면서, 정교(正校)·부교(副校)·참교(參校)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IKH], 2006). 이러한 『임시군제』의 계급에서 나타나는 ‘정·부·참’의 체계는 대한제국의 것을 모방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군사적 측면에서 임시정부가 대한제국군을 정신적으로 계승하였음(Han, 1993)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40년 9월 17일에 광복군이 성립되면서, 『임시군제』 별지 제8호의 계급 체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41년 11월 19일, 중국군사위원회가 광복군을 예속(隸屬)하기 위해 내린 조처인 ‘한국광복군 행동9개준승(韓國光復軍行動九個準繩)’(이하 9개준승)을 요구하면서(Han, 1993), 광복군은 중국식 계급 체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시기 국민정부군의 계급으로 장성급은 상장(上將)·중장(中將)·소장(少將), 교관급은 상교(上校)·중교(中校)·소교(少校), 위관급은 상위(上尉)·중위(中尉)·소위(少尉), 사관은 상사(上士)·중사(中士)·하사(下士), 병은 상등병·일등병·이등병으로 구분하였다(GRC, 1936). 이상의 내용은 1942년에 작성된 ‘한국광복군총사령부잠행편제표(韓國光復軍總司令部暫行編制表)’에서 총사령(總司令) 지청천(池青天, 1888~1957)이 중장(中將)인 것을 비롯해 각 대원의 계급이 중국식으로 표시된 것(Han, 199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44년 8월 23일 마침내 9개준승이 폐지되자 광복군은 중국식 계급 체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동년 10월에는 <군인등급에 관한 안>을 작성하여 『임시군제』의 교관을 위관으로, 일·이·삼등병을 상·일·이등병으로 변경해 사용키로 정하면서 『임시군제』의 계급 체계를 복원, 사용하게 된다(NIKH, 2006).

## III. 한국광복군이 착용한 중국 국민정부의 계급장

계급장은 계급을 나타내는 표지(標識)를 통칭하는 용어로, 광복군은 깃에 다는 영장(領章), 어깨에 부착하는 견장(肩章), 소매에 붙이는 수장(袖章), 그리고 명찰의 기능을 함께 하는 함명부호(銜名符號) 등으로 다

양하게 계급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광복군이 성립된 1940년 9월 17일부터 9개 준승이 전달된 1941년 11월 사이에 촬영된 광복군 사진에서는 계급장이라 할 수 있는 표지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광복군의 초창기 모습을 담은 대표 자료인 광복군 성립전례식 사진뿐만 아니라, 성립전례식으로부터 3개월 여가 지난 1940년 12월 26일에 촬영된 <Fig. 1>에서도 계급장은 찾아볼 수 없다. <Fig. 1>의 광복군 총사령부 총무처 직원들은 군모에는 모표(帽標)를, 왼쪽 가슴에는 소속 표지를 부착했으나, 계급장은 패용하지 않은 것이다. 즉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광복군은 성립 초기부터 계급 체계는 수립하였으나, 계급장 제도는 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광복군이 계급장을 착용하기 시작한 것은 1941년의 9개준승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광복군에 9개준승이 전달되면서 중국식 계급 체계가 수용되었고, 이때부터 중국식 계급장을 착용하게 된 것이다. 광복군은 9개준승이 유지되는 동안, 중국 국민정부가 1935년에 입법(立法)하여 이듬해에 공포(公布)한 『육군복제조

례』에 규정된 영장(領章)과 함명부호(銜名符號)를 계급장으로 사용하였다. 이 『육군복제조례』에 따른 계급장은 9개준승 폐지 이후 착용이 중지되었다가, 해방 이후 다시 착용되었다.

### 1) 영장

광복군이 국민정부군 영장을 착용한 사진은 상당수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양이 광복군 대원들이 광복군 성립 이전에 국민정부군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시기의 사진들이다. 한편, <Fig. 2>의 총사령 지청천은 국민정부군 영장을 착용했는데, 이 사진의 촬영연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의 왼쪽 가슴에 광복군임을 나타내는 표지장이 있어, 그가 광복군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사진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광복군이 국민정부군 영장을 착용한 모습은 주로 해방 이후에 나타나며, 해방 후 광복군 제3지대가 파견한 군사특파단(軍事特派團) 대원의 모습인 <Fig. 3>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이 착용한 영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정부의



Fig. 1. Employees of the general affairs office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general headquarters.

Adapted from History net (n.d.).

[http://contents.history.go.kr/mphoto/insi/imageView.do?levelId=mp\\_001\\_0030\\_0030&itemId=mp\\_001\\_0030\\_0030\\_0210](http://contents.history.go.kr/mphoto/insi/imageView.do?levelId=mp_001_0030_0030&itemId=mp_001_0030_0030_0210)



Fig. 2. Collar patch of lieutenant general.

Adapted from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TIHK]

(2020), p. 68.



Fig. 3. Collar patch of first lieutenant.

Adapted from The 3rd branch of Korean Independence Army

Photo Album Publishing Committee (1982), p.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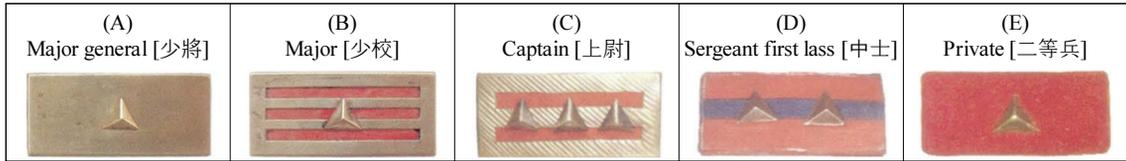


Fig. 4. Collar patches under the <Uniforms Act of the Army>.

Adapted from He (1995), p. 27.

『육군복제조례』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장은 직사각형으로 가로 5cm, 세로 2.2cm 크기였으며, 착용자의 병과(兵科), 관등(官等), 계급(階級)에 따라 형태와 색상을 달리하였다. 조례에는 관련 부도(附圖)가 제시되어 있지만, 부도가 흑백으로 되어있어 본 연구에서는 장관·교관·위관·군사·병원에 해당하는 영장을 <Fig. 4>의 유물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Fig. 4>의 영장 중 <Fig. 4-A>의 소장 영장을 제외하면, 견장의 바탕색은 모두 빨간색이다. 『육군복제조례』는 소장을 포함한 장관(將官)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장의 바탕에 병과 상징색을 넣도록 규정했다. 기병(騎兵)은 황색, 포병(砲兵)은 남색, 공병(工兵)은 백색 등이었으며, <Fig. 4-B>에서 <Fig. 4-E>의 빨간색은 보병(步兵)의 상징색이었다.

관등(官等)은 영장의 바탕과 선 장식으로 구분되었다. 장관은 <Fig. 4-A>처럼 바탕을 금색으로 하였다. 교관은 <Fig. 4-B>처럼 바탕을 견직물(絲織品)로 만들고, 네 모서리에 폭 3mm의 금색 선을 두르며, 중앙에 2mm 폭의 금색 선 2개를 두되, 선들의 간격은 3mm였다. 위관 역시 바탕은 견직물로 하되, <Fig. 4-C>처럼 3mm 폭의 금색 선을 1개만 두었다. 군사는 바탕을 견직물, 모직물(絲毛織品)로 하고, <Fig. 4-D>처럼 중앙에 폭 4mm의 남색 선을 두었다. 병(兵)은 군사와 동일한 바탕천을 사용하되, 선 장식은 없었다.

계급(階級)은 장관부터 병까지 지름 1cm의 입체 삼각형 별[三角星]로 표시되었는데, 계급의 상하에 따라 3개에서 1개까지 차등을 두었다. 단, 위관 중 준위(准尉)는 별을 달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Fig. 2>에서 총사령 지청천의 영장을 살펴보면, 삼각형 별 2개만 있는 국민정부군 중장(中將) 영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3>의 군사특파단 대원의 영장에는 가로 선과 삼각형 별 2개가 있어 국민정부군 중위(中尉)의 것임이 확인된다.

광복군이 이렇듯 국민정부군 영장을 착용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대로 9개

준수에 따른 중국식 계급장 제도의 도입 때문이다. 그러나 <Fig. 2>와 같은 일부 고급 장교의 사진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해방 이후 국민정부군과 협력하여 활동하면서 착용한 것이다. 광복군은 해방 직후, 국민정부로부터 각 지역에 잔류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Kim, 2005). 이에 따라 파견된 군사특파단이 국민정부군과 함께 활동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국민정부군 영장이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2. 함명부호

광복군은 『육군복제조례』가 규정한 국민정부군의 함명부호(銜名符號)를 널리 사용하였다. 이 함명부호는 착용자의 소속과 성명 등을 기재한 명찰(名札)로 왼쪽 가슴 위에 부착하였으며, 계급도 함께 표기되어, 명찰 겸 계급장으로 활용되었다.

이 함명부호는 9개준수 이전에 촬영된 광복군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9개준수 이후에는 <Fig. 5>와 같이 광복군 제2·3지대 대원들이 착용한 함명부호의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총사령부 경위대(警衛隊) 소속 한성도(韓成道, 1919~1950)의 함명부호 유물인 <Fig. 6>도 전해져 온다.

<Fig. 5>와 <Fig. 6>을 검토하기에 앞서, 『육군복제조례』의 함명부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군복제조례』에는 장교와 사병의 함명부호가 규정되었으며, 흑백도안이기 때문에, 색상을 제시하기 위해 <Fig. 7>의 삽화로 장관·교관·위관의 함명부호 일부를 소개한다.

장교의 함명부호는 흰색 견직물로 만들며, 가로 9cm, 세로 5cm이다. 관등별로 테두리 색을 달리했는데, 장관은 빨간색(Fig. 7-A), 교관은 노란색(Fig. 7-B), 위관은 파란색(Fig. 7-C)이었다. 또한 <Fig. 7>에서 보듯이 좌측의 삼각형 별 장식으로 계급을 구분하고, 교관과



**Fig. 5. Identification patch of the 2nd company, 2nd branch of Korean independence army.**  
Adapted from TIHK (2020). p. 172.



**Fig. 6. Identification patch of Han Seung-do.**  
Adapted from TIHK (2020). p. 213.

(A) Lieutenant general [中將]	(B) Infantry, lieutenant major [步兵 中校]	(C) Infantry, first lieutenant [步兵 中尉]

**Fig. 7. Identification patches under the <Uniforms Act of the Army>.**  
Adapted from China Second Historical Archives (2003). p. 57.

위관은 별 옆에 병과 상징색을 담은 세로선을 추가했다. 함명부호의 중앙에는 위에서 아래로 소속, 보직, 착용 연도가 기재되었으며, 우측에는 세로로 성명이 적혔다.

사병의 함명부호는 크기가 장교의 것과 동일하나, 흰색 면직물로 제작되었다. 계급은 별의 개수로 구분되며, 소속, 보직, 착용 연도, 성명 기재 방법은 장교용과 같지만, 테두리 색은 없다. 또한 병과 상징색을 담은 세로선이 별 장식 아래로 지나며, 이 선을 사관은 2줄, 병원은 1줄 두었다.

이러한 함명부호 규정에 따라 <Fig. 5>의 사진을 살펴보면, 화질의 한계로 기재된 내용은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테두리에 색이 있어 장교의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6>의 한성도 함명부호는 테두리가 노란색으로 한성도가 장교였음을 알 수 있다. 계급을 표시하는 삼각형 별은 없으나, 빨간 세로선이 그의 병과가 보병임을 나타낸다. 함명부호 중앙의 첫째 칸에는 ‘한국복군총사령부(韓國復軍總司令部)’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광복군총사령부’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둘째 칸에는 그의 소속인 ‘경위대(警衛隊)’가 적혀 있다. 셋째 칸에는 ‘중교대장(中校隊長)’이 기입되었는데, 중국식 계급인 중교와 직책인 대장을 둘 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 아래로 ‘중화민국35년도패용(中華民國三十五年度佩用)’이 적혀 있어 1946년에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고, 함명부호의 우측에는 착용자의 성명이 표기되어 있다.

이 함명부호가 사용된 시기는 1946년으로 즉, 9개준승이 폐지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중교’라는 중국식 계급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해방 이후 광복군이 중국 각지에서 확군(擴軍) 활동을 펼치면서, 국민정부군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려한다면, 중국 측이 함명부호 착용자의 계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중국식 계급을 기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 IV. 독자적으로 제정한 한국광복군 계급장

1944년 8월 23일, 9개준승이 취소되면서 광복군은 국민정부의 지휘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대한민국 군대로서의 면모를 되찾게 된다. 임시정부는 9개준승이 취소되기 이전인 1944년 4월에 <군무부공작계획대강(軍務部工作計劃大綱)>을 통해 9개준승 취소와 군인제복 양식 및 군인 표지(標識)의 제정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육군제복도안』과 『육군휘장도안』으로 실현되는데, 광복군의 계급장을 담은 『육군휘장도안』은 1944년 12월 25일에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듬해 2월 20일에 공포·시행되었다(Kim, 2019). 이 도안에는 장교의 견장(肩章)과 장교 및 사병의 수장(袖章)이

규정되었다. 장교의 수장 도안 및 실제 사용 모습은 Kim(2019)의 연구에서 소개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장교의 견장과 사병의 수장(袖章)이 실제로 어떻게 제작, 착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장교 견장

1) <육군휘장도안>의 장교 견장 규정

『육군휘장도안』에 묘사된 장교의 견장은 <Fig. 8>과 같다. 좌우 어깨에 한 개씩 착용하며, 견장의 바탕색은 『육군제복도안』에서 정한 상의의 색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도안에 따르면, 견장은 위가 둥근 사다리꼴이었고, 계급장 안에는 계급을 표시하는 별과 관등(官等)을 표시하는 무궁화를 달았는데, 정장·정령·정위는 별 3개, 부장·부령·부위는 별 2개, 참장·참령·참위는 별 1개씩을 부착했으며, 준위(특무정사)는 별을 달지 않았다. 무궁화는 관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색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장관의 것은 금색, 영관은 은색, 위관은 동색으로 보았다(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1997).

2) 실제 착용된 장교 견장

『육군휘장도안』의 장교 견장을 실제로 착용한 인물 중 하나는 <Fig. 9>의 총사령 지청천이다. 사진 속 견장을 <Fig. 10>과 같이 확대해보면, 견장 테두리의 형태, 그리고 별과 무궁화가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견장이 『육군휘장도안』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흑백 사진이기에 무궁화의 색을 알 수 없어 계급장의 관등 확인이 어려우나, 지청천이 광복군의 수장(首長)인 총사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육군휘장도안』의 최상

위 계급인 정장(正將) 계급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10>의 견장이 여러 부분에서 『육군휘장도안』과 다른 점도 확인된다. <Fig. 8-A>의 도안과는 달리, 무궁화와 별 아래로 긴 세로줄이 지나고 있으며, 견장 윗부분에 단추가 없고, 견장 테두리가 도드라져 보인다. 이 견장 단추와 도드라진 테두리는, 실제 착용된 견장의 제작 방식이 도안이 의도한 바와 달랐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첫째, 견장에 단추를 사용하는 것은 당시 미군과 영국군의 장교 견장에 채택된 방식이다. 미군과 영국군의 견장은 견장대(肩章帶)를 어깨에 부착하고, 그 위에 배지(badge) 형태의 표지장을 달아 관등과 계급을 표시하는 구조였다. 이때 견장대는 영국군 견장인 <Fig. 11>에서 보듯이 한쪽 끝은 어깨 끝에 봉제하고, 다른 한쪽 끝은 단추로 고정하기 때문에 단추가 사용되며, 이 단추가 『육군휘장도안』에 표현된 것이다. 또한 <Fig. 11>에서 보듯이 견장대는 군복 상의와 동일한 재질로 만드는데, 『육군휘장도안』이 “견장색은 (밀바다) 옷 색과 같음”이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육군휘장도안』의 장교 견장은 견장대 양식을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육군휘장도안』에는 모든 견장의 테두리가 <Fig. 8>과 같이 황색으로 표현되었다. 이 테두리는 견장대의 외곽선을 표현한 것으로, 『육군휘장도안』이 견장 색을 군복 상의의 색으로 지정했기에, <육군제복도안>(IMHCC, 1972)의 상의 색으로 제시된 황색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Fig. 10>에서 보듯이, 실제 착용된 견장은 사다리꼴 모양의 판(板)을 두고, 그 위에 별과 무궁화로 계급과 관등을 표시한 것이다. 또 견장 테두리는 도드라지게 만들었는데, 선행연구는 이를 ‘수식(繡飾)’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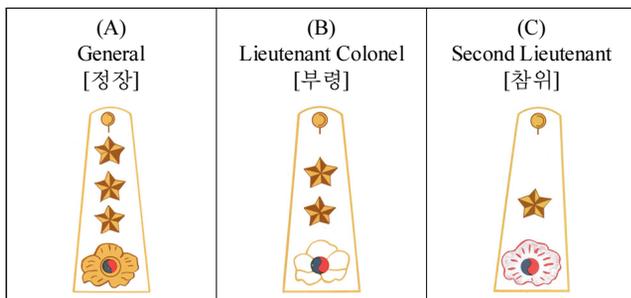


Fig. 8. Shoulder boards of <The Army Insignia Protocol>. Adapted from IMHCC (1972). p. 1.



Fig. 9. Shoulder board of general.

Adapted from The International Publicity League of Korea (1948). p. 13.



**Fig. 10. Part of Fig. 9.**  
Adapted from The International Publicity League of Korea (1948), p. 13.



**Fig. 11. Shoulder strap, lieutenant colonel of the British army.**  
Adapted from Imperial war museums (n.d.).  
<https://www.iwm.org.uk/collections/item/object/30094517>



**Fig. 12. Illustration of general's shoulder board.**  
Drawing by the author.

라 부르고 있다. 더불어 이 수식에 장관은 적색, 영관은 황색, 위관은 청색을 사용함으로써 관등을 구분했다고 한다(Army Uniform History Editorial Board, 1980).

하지만, 선행연구가 광복군 복식에 대해 광복군 종사자의 증언을 참고했다고 밝혔으나, 수식과 관련된 구술자나 입증 사료(史料)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다양한 색이 사용되었다고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단, 앞서 언급한 대로 사진 속 견장을 제작하는 방식이 『육군휘장도안』이 정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도안과 차이가 있는 견장 제도가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선행연구가 언급한 적색, 황색, 청색은 앞서 살펴본 국민정부 함명부호의 테두리에 사용된 색으로, 장교 견장 테두리에 다양한 색이 사용되었다면, 함명부호에 사용하던 색 체계가 장교 견장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식에 대해서는 추후 사료나 유물 발굴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수식을 논외로 하고, <Fig. 10>의 정장(正將) 견장을 도안으로 새롭게 제시하면 <Fig. 12>와 같다. 견장의 바탕색은 <Fig. 9>로 추정할 수 없어, 『육군제복도안』이 정한 제복 상의의 색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 『육군휘장도안』과 달리 세로로 지나는 선을 넣고, 그 위에 별 3개와 무궁화를 두었다. 또 <Fig. 8-A>의 『육군휘장도안』은 태극의 음양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사용했지만, <Fig. 9>로 미루어 볼 때, 별과 무궁화 꽃잎, 그리고 태극은 모두 같은 소재와 색상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장교 견장과 관련하여 “또 조원구(趙源九) 동지로부터 8·15 후 어느 날 갑자기 견장에 달 별을 만들라고 명령이 내려 여섯 개를 만들어준 일이 있다.”는 비화를 들은 일이 있다.”는 광복군 태윤기(太倫基, 1918

~2012)의 회고(Tae, 1975, p. 228)가 남아 있다. 이를 통해 <Fig. 10>과 같은 견장에 사용된 별 표지는 견장 바탕에 자수를 놓아 만든 것이 아닌, 별도로 제작해 부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3) 장교 견장의 패용 방법

견장을 군복에 패용하는 방법은 <Fig. 13>의 광복군 김우전(金祐銓, 1922~2019)의 사진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의 상의 왼쪽 어깨에서 고리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견장을 걸기 위한 것으로, 당시 국민정부군과 일본군의 대례복에 사용되던 것과 같다. 일본군 대례복 견장과 이를 착용하는 방법을 <Fig. 14>의 삽화로 보면, 견장 뒷면에 걸쇠가 있고, 이를 상의의 견장 고리에 걸어서 고정하는 것이다. 국민정부군의 대례복 견장도 『육군복제조례』에 이와 같은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Fig. 13>처럼 제복 상의의 어깨에 견장 고리가 달린 점,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광복군 견장을 판(板) 형태로 본다면, 광복군 견장 역시 뒷면에 걸쇠가 있는 형태였을 것이다.

그런데 광복군은 이 견장을 드물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사령 지청천의 복장에 대해 “선이 넘었을 이 장군이 입은 광복군 사령관의 군복엔, 그러나 아무런 견장도 계급도 없었다.”라는 광복군 장준하(張俊河, 1918~1975)의 회고(Chang, 2015, p. 243)가 있는 점, 그리고 이 견장을 패용한 사진이 현재까지는 <Fig. 9>의 총사령 지청천과 제3지대 정훈주임(政訓主任) 조병걸(趙炳傑, 1898~1946)의 것밖에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극소량만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 일본군과 국민정부군이 대례복에 이 걸쇠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기에, 광복군 견장 역시 고위 간부가 예



**Fig. 13. Cloth loop for shoulder board.**

Adapted from The Institut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n.d).  
<https://search.i815.or.kr/dictionary/detail.do?searchWord=&SearchWord=&searchType=all&index=1&id=3444#tab2>



**Fig. 14. Clap of Japanese military shoulder board and how to attach.**

Adapted from Ritta (1991). p. 9.

복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2. 사병 수장

### 1) 『육군휘장도안』의 사병 수장 규정

『육군휘장도안』에 묘사된 사병수장은 <Fig. 15>와 같다. 사병 수장은 특무정사, 정·부·참사, 상등·일등·이등병의 것이 있었으며, 황색 바탕천 위에 별[星]과 빨간색의 ‘^’ 문양으로 관등과 계급을 표시했는데, 별의 유무로 사관과 병(兵)을 구분하였으며, ‘^’의 개수로 계급을 나타냈다. 특무정사는 ‘^’이 4개, 정사와 상등병 3개, 부사와 일등병 2개, 참사와 이등병은 1개였으며, 군속(軍屬)은 ‘^’의 색상을 파란색으로 규정했다. 이 수장의 부착 위치는 오른쪽 소매 중간으로 규정되었다(Kim, 2019).

### 2) 실제 착용된 사병 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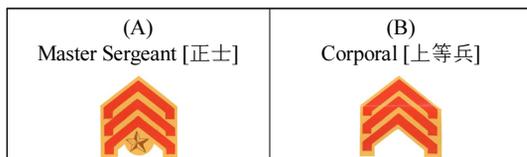
사병 수장이 <Fig. 15>와 같이 규정되었으나, 해방 이후 중국 개봉(开封)에서 활동한 광복군의 사진들을 보면 사병 수장의 형태가 규정과는 부분적인 차이를 보인다. 우선 『육군휘장도안』의 사병 수장은 <Fig. 15>에서 보듯이 바탕의 아래가 삼각형으로 파인 형상인데, <Fig. 16>으로 제시한 실제 착용 수장은 아래가 파

여 있지 않다. 또한, 『육군휘장도안』에서는 ‘^’자 표식이 늘어남에 따라 수장의 바탕이 같이 커지지만, <Fig. 16>에서는 ‘^’자 표식의 개수와 상관없이 바탕의 크기가 상등병 계급에 준한다. 즉 실제로 제작된 사병 수장은 그 바탕을 처음부터 상등병 수장 정도의 크기로 만든 뒤, 진급할 때마다 ‘^’자 표식을 추가로 부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을 반영해 사진 속 수장들의 모습을 그려 <Fig. 16>에 함께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육군휘장도안』에서는 사병 수장을 ‘우 소매 중간에 담’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우측 소매가 아닌 상박(上膊)에 부착한 차이도 보인다.

한편, <Fig. 16-C>과 <Fig. 16-D>에는 군복이 아닌 흰색 셔츠에 수장이 부착되어 있다. 수장을 부착한 대원들은 여성으로, 흰색 셔츠를 군복으로 착용했을 수도 있으나, 군인이 아니라 현재의 군무원(軍務員)에 해당하는 군속(軍屬)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들이 군속이었다면, 수장의 ‘^’은 파란색이었을 것이며, <Fig. 16>의 일러스트에는 이를 적용해보았다.

## 3. 견장과 수장의 유래

지금까지 살펴본 『육군휘장도안』의 계급장이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이 없다. 광복군의 계급장에 대해, 영국군과 함께 활동한 인면전구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 대원 문응국(文應國, 1921~1996)은 1945년 9월 6일까지 계급장이 없었고, “우리가 편지를 해서 빨리 계급장을 만들자 해서 무궁화로 만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식을 많이 닮았어요.”라고 회고한다(Editorial department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86, p. 118). 이 계급장이 그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 우선 견장



**Fig. 15. Chevrons of <The Army Insignia Protocol>.**

Adapted from IMHCC (1972).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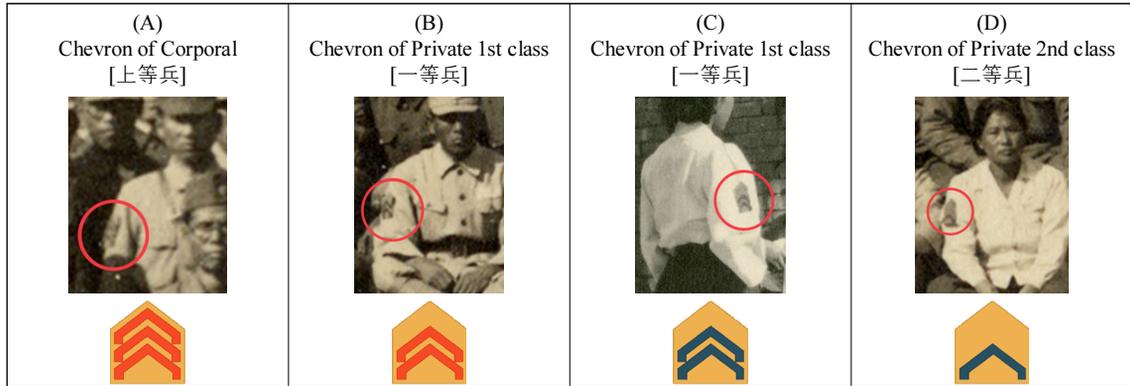


Fig. 16. Chevrons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illustration.  
Adapted from TIHK (2020). pp. 173-176. and Drawing by the author.

으로 추정되는데, 『육군휘장도안』이 제정되었음에도 사용하지 않다가, 해방 이후에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8·15 후 갑자기 견장에 부착할 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회고에서 견장이 영국식이라 했으나, 실제로 사용된 견장은 판(板) 형식이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당시 광복군이 중국군의 영장을 흔히 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깨에 별과 무궁화 표지로 계급을 표시하는 방식을 일컬어 영국식이라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육군휘장도안』처럼 장교 견장, 장교와 사병의 수장 제도를 운용한 군대 중, 광복군과 영향 관계에 있던 곳은 미군이다. 그리고 광복

군의 수장에 부착된 ‘^’ 형태 표식은 <Fig. 17>의 영국군 수장보다, <Fig. 18>의 미군 수장에 더 근접한 모양이다. 즉, 광복군의 견장과 수장 제도 및 그 형태는 영국군과 미군의 영향으로 고루 받은 것으로 보인다.

## V. 한국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의 계급장

### 1.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의 성립과 활동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는 중국 국민정부군 제9전구(戰區)에서 1945년 5월 이후에 구성된 광복군의 한 부대이다. 이들은 일본군을 탈출한 한적사병(韓籍士兵)으로 이루어졌으며, 광복군으로 성립되기 전까지 포로로 간주되어 국민정부군에게 억류되거나, 국민정부군에 배속되어 적 후방 활동에 종사하였다. 임시정부와 광복군 총사령부가 제1지대 3구대의 성립 사실을 8·15 이후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나, 제9전구 지역의 한인 탈출 상황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총사령부는 제9전구의 한적사병 등으로 광복군으로 조직하기 위해 이병근(李炳坤, 1921~1979)과 김귀선(金貴先, 1919~2007)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각각 제1지대 제3구대의 구대장과 정치지도원으로 활동하였다(Kim, 2000).

### 2. 계급장의 형태와 착용

제3구대 대원들의 사진에서 <Fig. 19>와 같이 왼쪽 가슴 위에 부착된 독특한 형태의 표지장을 볼 수 있는



Fig. 17. Chevron of the British army.

Adapted from Matzos (2005).

[www.militaryimages.net/media/vw2-british-army-ranks.5436](http://www.militaryimages.net/media/vw2-british-army-ranks.5436)



Fig. 18. Chevron of the U.S. army.

Adapted from Enjames (2005). p. 13.



**Fig. 19. Breast insignia of the 3rd company, 1st branch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dapted from Kwon et al. (2015). p. 43.



**Fig. 20. Breast insignia of the Japanese military.**  
Adapted from Ritta (1991). p. 19.



**Fig. 21. Breast insignia of the 3rd company.**  
Adapted from Kwon et al. (2015). p. 43.



**Fig. 22. Breast insignia of the 3rd company.**  
Adapted from THK (2020). p. 84.

데, 이는 『육군복제조례』나 『육군휘장도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보통 국민정부군은 해당 위치에 함명부호를 부착했지만, 일본군은 <Fig. 20>처럼 계급장을 부착하기도 했다. 또 <Fig. 19>의 제3구대 표지장은 어두운 바탕에 밝은 색의 표식 3개가 부착된 형태인데, 이는 별[星] 1~3개를 부착하는 <Fig. 20>의 일본군 계급장과 유사하다.

제3구대 관련 문헌 자료 자체가 부족하여 <Fig. 19>의 표지장이 계급장이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제3구대의 병력이 일본군을 탈출한 한적사병으로 구성되었고, 그들이 광복군이 된 이후에도 일본 군복을 착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일본군 표지장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한, 광복군 총사령부가 제3구대의 존재 자체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접촉이 미미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육군휘장도안』의 계급장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제3구대는 일본군 계급장에서 영향을 받아 자체적으로 계급장을 제작,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3구대가 사용한 <Fig. 21>과 <Fig. 22>의 표지장도 확인된다. 이 표지장에는 각각 가로선 1개와 2개가 지나는데, 추후 사진 및 문헌 자료가 발굴되면 명확해지겠지만, 각기 다른 계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 VI. 결 론

이 연구는 광복군이 사용한 계급장, 즉 중국 국민정부군 계급장과 독자적으로 제정한 광복군 계급장, 그리고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가 자체적으로 제작,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급장의 형태 및 색상, 착용 방

법, 유래 등을 법률 규정, 문헌 및 사진 자료를 통해 다각도로 고찰한 것이다.

광복군이 착용한 국민정부군의 계급장은 영장(領章)과 함명부호(銜名符號)가 있는데, 이들은 중국 국민정부의 『육군복제조례』에 규정된 계급장들이다. 영장은 칼라에 다는 것으로 광복군 내에서는 일부 고급 장교 또는 국민정부군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 대원들이 착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함명부호는 착용자의 소속, 성명 등과 함께 계급을 표기하여 명찰 겸 계급장의 역할을 한 것으로, 광복군에게 영장보다 널리 사용되었다.

독자적으로 제정한 광복군 계급장은 장교 견장과 장교 및 사병 수장이 있으며, 이는 『육군휘장도안』에 제정되었지만, 규정과 실제로 착용된 모습이 다르다. 실제 사용된 장교 견장은 무궁화와 별 아래로 세로줄이 지나고, 견장 윗부분에 단추가 없고, 견장 테두리가 드러나진다. 이는 장교 견장을 영국군이나 미군의 방식으로 고안했으나, 실제로는 국민정부군과 일본군의 대레복에 사용하는 판형으로 제작하면서 발생한 차이로 보이며, 예복용으로 소수의 고위 간부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 사용된 사병용 수장은 『육군휘장도안』과 달리, ‘^’자 표식의 개수와 상관없이 바탕의 크기가 동일한데, 처음부터 상등병의 수장 정도의 크기로 바탕을 만든 뒤, 진급할 때마다 ‘^’자 표식을 더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여성 대원들은 흰색 셔츠에 수장을 부착했는데, 그들이 군속이었다면 파란색 ‘^’ 표식을 달았을 것이다.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의 계급장은 관련 문헌 자료는 없으나, 제3구대 대원들이 왼쪽 가슴에 밝은 표식이 있는 표지장을 착용하거나, 1~2개의 가로선을 둔 표

지장을 패용했음을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육군휘장도안』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3구대가 광복군 총사령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자체 제작해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광복군의 계급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으며, 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40년 9월 광복군이 창설 당시, 대한제국군의 계급제도를 모방한 『임시군제』의 계급체계를 따랐으나, 계급장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41년 11월, 중국군사위원회로부터 9개 준승이 광복군에 전달되었고, 광복군은 국민정부군의 계급체계와 『육군복제조례』의 계급장인 영장과 함명부호를 착용하게 된다. 1944년 8월, 9개 준승이 폐지되자 광복군은 『임시군제』의 계급체계를 복원하고, 12월에는 『육군휘장도안』을 제정하였다. 이 도안은 1945년 2월에 공포·시행되어, 광복군은 공식적으로 자체 고안한 계급장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장교 견장과 장교 및 사병 수장을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장교 견장은 광복 이후야야 고위 간부만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교 수장도 사용 예가 드물며, 사병 수장도 해방 이후 제2지대 사진 자료에서 확인된다. 그 후, 광복군은 1946년 5월에 해체될 때까지 『육군휘장도안』의 계급장을 사용했으며, 제3지대 군사특과단처럼 중국 국민정부군과 같이 활동한 대원들은 『육군복제조례』의 계급장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고찰할 수 있는 사진 자료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유물이 희소하며, 제1지대 제3구대의 경우에는 문헌 자료마저 부족한 점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자료의 발굴로 광복군의 계급장에 대해 보다 상세히 조명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 사사

해당사항 없음.

#### 2. 연구윤리

해당사항 없음.

#### 3. 데이터 및 자료 가용성

해당사항 없음.

#### 4. 이해관계 상충

해당사항 없음.

#### 5. 연구비 지원

해당사항 없음.

#### 6. 저자의 기여

JK는 연구계획, 자료수집, 원고작성을 주로 담당하였고, CK 자료수집, 원고작성을 담당하였음. 모든 저자가 최종 원고를 읽고 승인하였음.

#### 7. 저자 정보

김정민 인하대학교 글로벌패션산업학부, 강사

김창혁 전(前) 대한민국 육군, 중위

## References

- Army Uniform History Editorial Board. (1980). *陸軍服制史* [Army uniform history]. Army Headquarters.
- Chang, C. H. (2015). *돌베개: 장준하의 항일대장정* [Stone underhead: Chang Chun-ha's long march for struggle against Japan]. Dolbegae.
- China Second Historical Archives. (2003). *民國軍服圖志* [Republic of China military uniform illustrations]. Shanghai Bookstore Publishing House.
- Editorial department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86). *한국독립운동증언자료집*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estimony collect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Enjames, H.-P. (2022). *The G.I. collector's guide: U.S. army service forces catalog, European theater of operations: volume 1*. Casemate.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1936). *陸軍服制條例* [Uniforms act of the army]. Weiji Wenku. [https://zh.wikisource.org/wiki/%E9%99%B8%E8%BB%8D%E6%9C%8D%E5%88%B6%E6%A2%9D%E4%BE%8B\\_\(%E6%B0%91%E5%9C%8B24%E5%B9%B4%E7%AB%8B%E6%B3%9525%E5%B9%B4%E5%85%AC%E5%B8%83\)](https://zh.wikisource.org/wiki/%E9%99%B8%E8%BB%8D%E6%9C%8D%E5%88%B6%E6%A2%9D%E4%BE%8B_(%E6%B0%91%E5%9C%8B24%E5%B9%B4%E7%AB%8B%E6%B3%9525%E5%B9%B4%E5%85%AC%E5%B8%83))
- Han, S. J. (1993). *韓國光復軍 研究* [A study on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Ilchokak.
- He, G. L. (1995). *黃埔軍服: 國民革命軍軍服典藏鑑賞* [Uniforms, insignia, badges of R.O.C. armies: 1930s~early 1950s]. Military Culture Department of Old Comrades Studio.
- History net. (n.d.).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총무처 직원 일동(서안, 1940. 12. 26)* [Employees of the general affairs office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general headquarters(Xi'an, 1940. 12. 26)] [photograph]. [http://contents.history.go.kr/mphoto/imsi/imageView.do?levelId=mp\\_001\\_0030\\_0030&itemId=mp\\_001\\_0030\\_0030\\_0210](http://contents.history.go.kr/mphoto/imsi/imageView.do?levelId=mp_001_0030_0030&itemId=mp_001_0030_0030_0210)
- Imperial war museums. (n.d.). *Jacket, service dress: Lt.Col Price-Davies VC, home guard* [Photograph]. <https://www.>

- iwm.org.uk/collections/item/object/30094517
-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1972). *독립운동사 제4권*[History of independence movement: Volume 4]. Management Committee of the Independence Persons of Merit Business Fund.
-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1997). *韓國의 軍服飾 發達史 I* [The history of military clothing development in Korea I].
- Kim, J. M., & Kim, C. H. (2023). A Study on the military uniforms of the Korean volunteer corps and the 1st branch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7(4), 684–695. <https://doi.org/10.5850/JKSCT.2023.47.4.684>
- Kim, J.-M. (2019). *A study on military uniforms and gear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Kim, K. J. (2000). The activities of the third company of the 1st detachment in the KIA. *Journal of Studies on Korean National Movement*, 26, 31–58.
- Kim, M. T. (2005). *광복군 김문택 수기 下-광복군*[Memoir of Kim Mun-taek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two-Korean independence army]. The Institut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 Kwon, K. W., Kim, K. J., Kim, B. K., Oh, S. G., Yu, J. C., Yoon, S. J., Lee, Y. S., Lee, Y. J., Lee, Y. C., & Lee, J. L. (2015). *우리는 광복군, 조국의 영원한 용사* [We are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the eternal warriors of the fatherland].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 Matzos. (2005, May 12). *WW2 British army ranks* [Photograph]. Militaryimages. <https://www.militaryimages.net/media/ww2-british-army-ranks.5436>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9*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data collection9].
- Ritta, N. (1991). Japanese military uniforms 1930~1945. Dainippon Kaiga.
- Tae, Y. K. (1975). *회想的 黃河: 피어린 獨立軍의 抗爭手記* [The Yellow River of recollection-memories of the struggle of the fierce independence army]. Kap-in Publisher.
- The 3rd branch of Korean Independence Army Photo Album Publishing Committee. (1982). *抗日戰의 先鋒* [Vanguard of anti-Japanese war]. <https://search.i815.or.kr/sojang/read.do?isTotalSearch=Y&picture=&adminId=1-001322-000>
-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2020).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https://search.i815.or.kr/data2/ebook/sojang\\_image/ebook\\_06/index.html](https://search.i815.or.kr/data2/ebook/sojang_image/ebook_06/index.html)
- The Institut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n.d.). *광복군 당시 김우전* [Kim Wu-chon at the time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Photograph]. <https://search.i815.or.kr/dictionary/detail.do?searchWord=&reSearchWord=&searchType=all&index=1&id=3444#tab2>
- The International Publicity League of Korea. (1948). *Pictorial Korea*. <https://search.i815.or.kr/sojang/read.do?isTotalSearch=Y&book=&adminId=1-B00117-006>